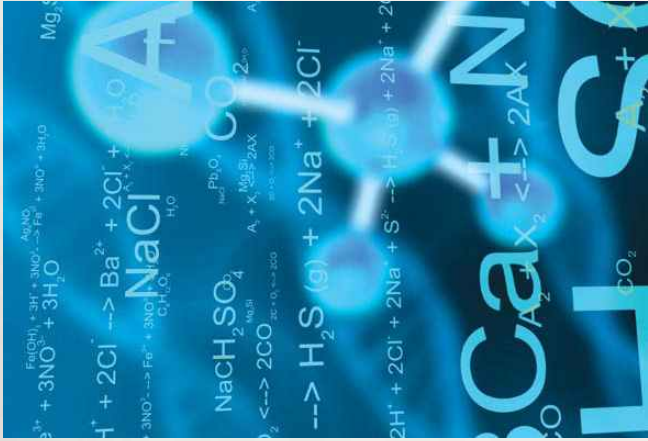


쉽게 썼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책

머리말에서 이 책이 신학적 방법론을 다룬 '과학적 신학, A Scientific Theology: 2001-2003', 3부작을 일반인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부 서설만 보더라도 신학과 자연과학이 대화하여야 하는 존재론적 당위성과 과학적 신학의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연구방식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이어서 한 단계 높아 있지만, 이 책 끝 부분인 [4부 이론] 부분까지 읽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부 자연]에서는 기독교에서의 자연과 창조설미 그리고 자연신학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자연에 관한 기독교 전통 기독교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자연에 관한 기독교 전통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지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바로 내놓지 않는다. 기독교 창조설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교리가 자연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리고 있어 이런 유의 책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부 실재]에서는 자연신학과 전통을 조율하는 종교적 추구와 기독교 전통의 합리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연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독교 전통이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전통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석적 도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자연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부 이론]에서는 교조적이지 않은 기독교의 본체론과 함께 교리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교리의 발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무엇이 최선의 설명인지? 다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과학신학'은 분명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요약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자연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분명 좋은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진지하게 하나님과 자연과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⑥



유정희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행동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행동과 사회)〈한겨레〉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한국조류학회 회장이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회총동무며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금식

스캇 맥나이트 지음 | 인성인 물리 INP 펴냄

⑥ 최현일(홍익대학교)·외과대학영양연구실장

좋은 책을 만났다. 스캇 맥나이트의 『금식』이라는 책이다. 제목이 나의 시선을 책에 머물게 하였다. 금식,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금식해본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도 되지 않는 나에게 INP에서 강권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의 제목은 금식이라는 의식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던 나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했던 나는 교회에서 금식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금식해야 남들 보기에도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남들이 금식할 때 나는 좌절감을 가졌어 했다. 지금까지도 풀기 어려웠던 이 문제를 저자는 명쾌하게 성경적 근거와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풀어 주었다. 올바른 금식의 큰 그림을 알려주었다.

저자는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몸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의 온전한 유기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유기적 통합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몸과 정신, 영혼과 마음 등, 모든 인간의 측면들이 본래 하나라는 것이다. "성경은 몸을 그릇에 담듯이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이며 동시에 몸이다. 즉 기독교는 인간의 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원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을 가진 하나의 존재일 뿐 외면과 내면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몸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회복하려는 저자의 설명은 금식은 유기적 통합체인 우리 몸의 영성임을 강조한다. 즉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몸과 영혼이 하나인 원래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식은 전 존재로서의 반응이며, 통합된 영성의 표현이다. 금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반응의 하나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선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금식은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금식을 정의한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무엇인가에 진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반응임을 일깨워준다. 이 말은 금식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나의 결단적 반응임을 알려준다. 내가 원하는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결단적인 반응으로서의 금식이라는 서술은 금식에 대한 내 생각에 번화를 가져왔다. 어떤 목적을 위한 금식의 행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내 생각은 저자의 성경적 해석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다.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기에 금식하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진고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금식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 몸의 통합적인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수술을 주로 하는 의로서 나는 수술을 진후환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식에 관한 다른 측면에서의 유익을 볼 기회가 있었다. 보통 복부에 수술해야 하면 수술 전에 위장을 비워야 하므로 수술 전에 권장과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장내 가스가 나올 때까지는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때의 금식은 완전금식이다. 물론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환자는 수술 후 이튿날 동인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수술 부위 상처의 통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먹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다. 그러나 퇴원할 때쯤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먹지 못하는 기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몸이 힘들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아져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의 면회도 찾아지면서는 다시 이전의 삶의 패턴과 생각들로 채워지더라는 것이다. 절실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의지적으로 선택한 금식은 아니고 수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금식이지만 나는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캇 패나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몸의 돌이킬 수 없는 한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회심의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장엄한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식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비록 수술하기 위해서지만 금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의 유기체인 통합체라는 것이다. 몸의 돌이킴은 영혼의 돌이킴을 가져오고 영혼의 돌이킴은 몸의 돌이킴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이므로.

따라서 몸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를 표현해 준다. 저자는 이 사실을 누차 강조하면서 금식은 우리 몸의 돌이킬, 몸의 간구, 몸의 탐식, 몸의 훈련, 몸의 절기, 몸의 빈곤, 몸의 제형, 몸의 소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반응임을 풀어간다.

이런 자연적이고 친인적인 반응, 어떤 목적을 바라거나 나의 의지대로 금식이라는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아래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압도적인 상황에서



최현민 신부인과 전문의, 현재 호신의료재단 의과대학생명연구원 연구원장이며 한림대학교 생명대학부 겸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호신의료재단 생명생명학 부임장임을 역임하였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GW)에서 수학하며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과 교류를 쌓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와 신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식, 그것은 남들이 하는 금식을 따라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나의 나약한 의식을 깨워주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마지못해 따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 존재를 드러내야 할 때, 난 금식이라는 영혼의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 맛보고 싶은 그것을 스캇 패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멋지게 그려내고 있다.

“자연스러운 금식으로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공감하게 되고 엄숙한 상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 죽으면 하나님도 비통해하신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특히 가장할만한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애통해하신다. 나라의 운명이 위협 받을 때 하나님도 깊은 시름에 잠기신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 하나님도 깊은 시름에 잠기게 만든다는 점이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금식은 단지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가는 값진 여정이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기쁨 중의 하나는 책을 통하여 또 다른 좋은 책을 소개받는 것이다. 인용한 책들의 목록을 통하여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책의 내용 가운데서 자가 영향받은 책을 소개할 때 더욱더 그 영향력은 크다. 스캇 패나이트는 내용의 곳곳에서 자신이 읽었고 영향받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책을 읽어 나가는 여정에 단비처럼 다가온다. 또한, 부딪치지 않는 크기와 스타일로 제작된 책이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 주제를 핵심적으로 풀어가는 저자의 서술 방식은 초점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도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스캇 패나이트는 나의 금식에 관한 잘못된 편견과 부끄러운 원인을 치유해 주었고, 더욱 더 깊고 명확한 의미가 있는 금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었다. 금식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를 심어주는 탁월한 저자의 책이다. 6

유대인의 넥타이 가게



아프가니스탄 사막 한가운데 유대인 한 사람이 가게를 차려놓고 넥타이를 팔고 있었다. 파카운 햇벌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탈레반 전사 하나가 가게에 찾아왔다.
“넥타이 하나 사시겠습니까?”
주인이 물었다.

탈레반 전사가 버럭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넥타이는 무슨 말라빠진 넥타이나? 물론 한 모금 마시러 왔다.”

“이 가게는 넥타이 가깝니다.

물을 사시려면 저 언덕 넘어 식당에 가 보십시오.”

탈레반은 다시 욕을 하면서 언덕 너머로 향해 갔다.

그런데 한 30분쯤 후에 그 탈레반이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다시 넥타이 가게로 걸어왔다.

“야. 넥타이 하나 줘!

저 언덕 넘어 너의 형이 운영하는 그 망할 놈의 식당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잖아!” 6

